

멕시코의 경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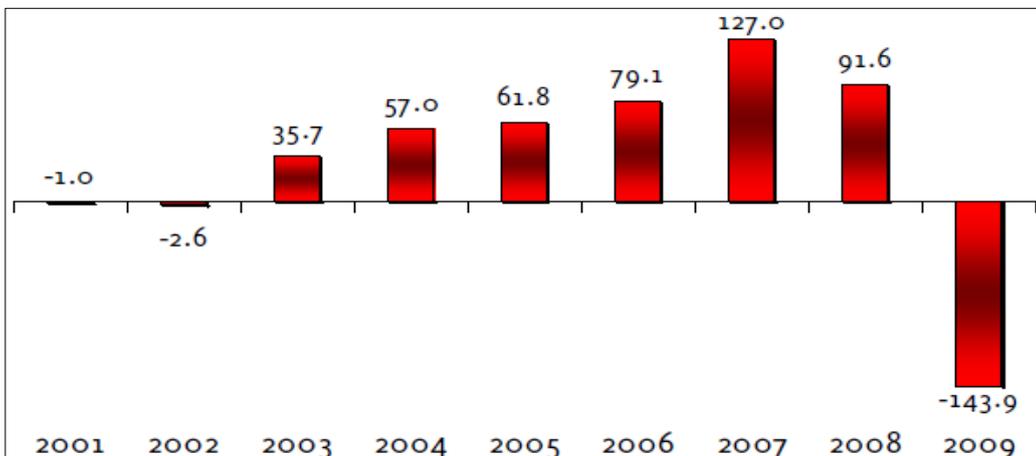
1. 멕시코의 경제 동향

□ 올 들어 멕시코 정부 재정 적자 급증

- 2009. 7월중 멕시코정부 재정적자 규모가 493억 페소를 기록. 이에 따라 1월부터 7월까지의 누적적자는 1,439억 페소에 이름. 이는 최근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부의 경기부양관련 재정 지출의 증가에 기인
- 정부는 그러나 PEMEX 투자 등 850억 페소를 제외할 경우 7월중 약 400억 페소의 흑자로 볼 수 있다고 주장
- 한편, 금년 7월까지 누적 세입은 1조 5,415억 페소로 전년 동기간 대비 8%가 감소했으나, 세출은 1조 6,953억 달러로 6.8%가 증가했음

<그림 1> 연도별 정부재정수지 추이(1월 ~ 7월)

(단위 : 십억 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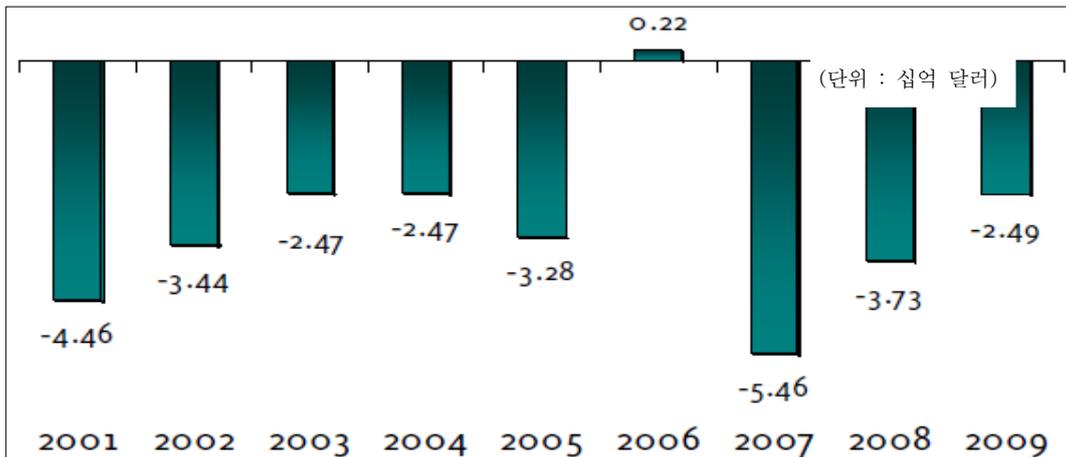


자료 : 멕시코 재무부

□ **교역수지 적자규모 지난해보다 줄어**

- 7월 중 멕시코 교역수지 현황은 12.7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금년 1월부터 7월까지의 누적 적자규모는 24.85억 달러
- 이는 지난해 동기간 중 37.28억 달러의 적자를 보인 것에 비해 적자폭이 줄어들었으나 올해의 경우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동국의 수출 감소폭 보다 수입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을 감안하면 호전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7월 중 수출은 179.8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4.7%나 감소했는데 이 중 비석유부문 수출이 30.2%가 감소한 반면, 석유수출이 51.2%가 감소한 데 기인
- 한편, 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33.1%가 줄어든 192.6억 달러를 기록. 제품별로는 중간재가 33.8%로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자본재 및 소비재는 각각 31.3% 및 30.8%가 감소

<그림 2> 연도별 교역수지(1월 ~ 7월)



자료 : 멕시코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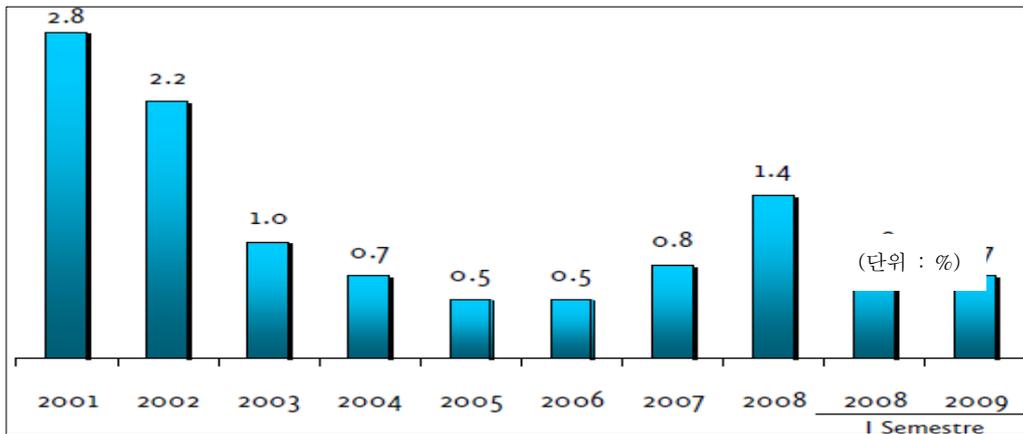
□ **2분기 경상수지 흑자 시현**

- 2분기 중 멕시코 경상수지는 4.54억 달러의 흑자를 시현했는데 세부적으로는 교역수지 및 이전수지가 각각 6.8억 달러 및 57.05억 달러 흑자를 시

현한 반면, 서비스수지는 59.3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데 기인

- 이에 따라 상반기까지의 누적 경상수지는 29.2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 (GDP의 0.7%)

<그림 3> 연도별 GDP대비 경상수지 적자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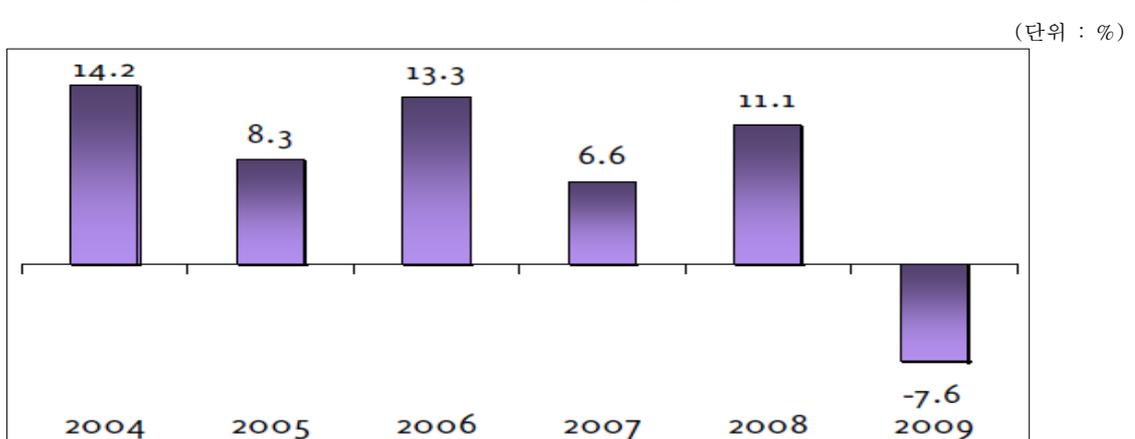


자료 : 멕시코 중앙은행

□ 2분기 GDP 성장률 (-) 기록

- 금년 2분기 중 멕시코 명목GDP는 11조 4,010억 페소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7.6%가 감소했으며, 실질GDP는 10.3%가 감소
- 산업별 GDP 구성비는 3차 산업이 61.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차 산업 35.5%, 1차 산업 5.0%를 차지

<그림 4> 연도별 2분기 명목GDP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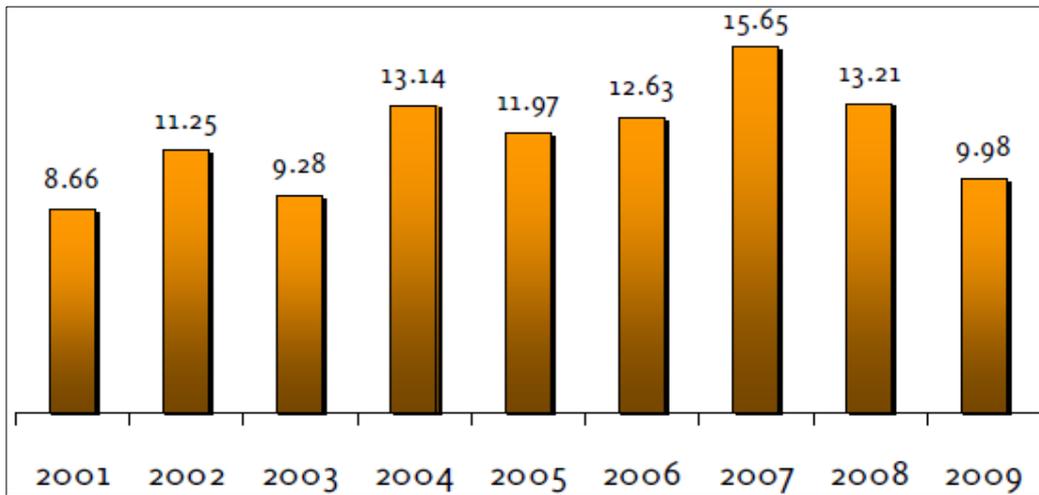


자료 : 멕시코 통계청

□ 2분기 대 멕시코 외국인직접투자 세계 경제 위기로 상당폭 줄어

- 금년 2분기 중 대 멕시코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46.5억 달러를 기록. 참고로 전년동기 및 전분기 FDI 규모는 각각 53.3억 달러 및 71.4억 달러임.
- 한편, 상반기 누적 투자금액은 99.8억 달러로 전년동기 132.1억 달러 대비 24.5%가 감소

<그림 5> 연도별 상반기 FDI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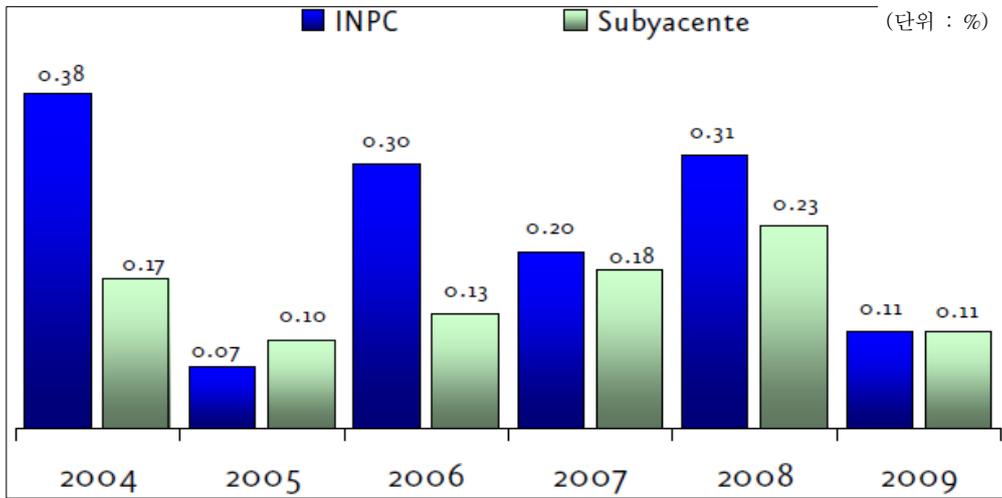
자료 : 멕시코 중앙은행

□ 8월 인플레이션 증가율 하향 안정세

(단위 : 십억 달러)

- 멕시코 중앙은행에 따르면 8월 첫 2주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11%가 상승했으며, 전년동기간 대비로는 0.20%p가 감소. 이는 비근원물가상승률과 주택가격 변동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농산물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한데 기인
- 이에 따라, 8월 첫 2주말 현재까지의 금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56%를 기록했으며, 이를 기준으로 멕시코 중앙은행은 연말 전망치를 5.12%로 예상

<그림 6> 연도별 8월 첫 2주간 인플레이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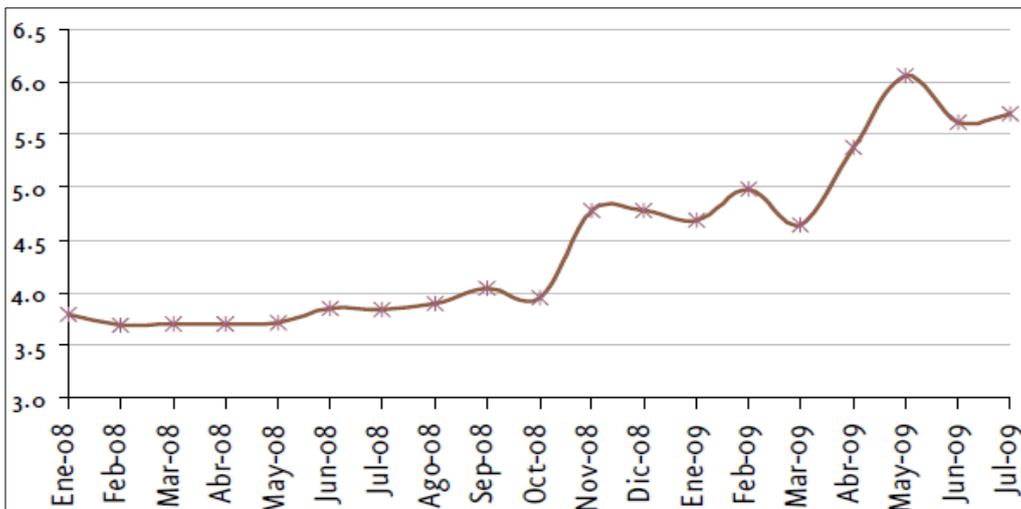
자료 : 멕시코 중앙은행

□ 멕시코 남성보다 여성 실업률 높아

소비자물가상승률 근원물가상승률 (단위 : %)

- 7월말 현재 실업률은 경제활동가능인구대비 6.12%(2008년 4.15%)를 기록. 성별로는 남성이 3.92%에서 5.97%, 여성이 4.52%에서 6.37%로 증가
- 한편,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실업률은 5.70%로 전월 5.62% 대비 0.08%p가 증가

<그림 7> 멕시코 실업률 증감 추이(계절요인 감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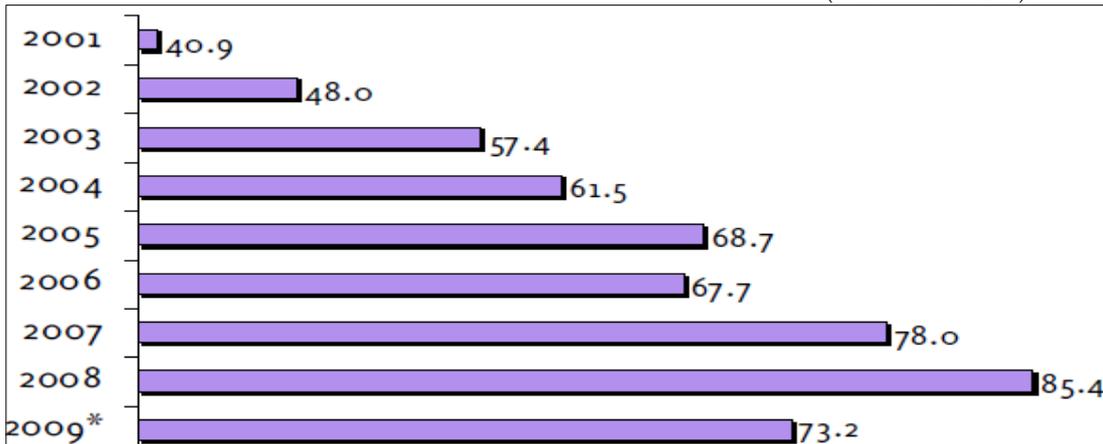
자료 : 멕시코 통계청

□ 멕시코 외환보유고 전년말대비 122억 달러 감소

- 8월 21일 현재 멕시코 외환보유고는 731.6억 달러로 8월 14일 대비 4.2억 달러가 줄었으며, 전년말 대비로는 122억 달러가 감소

<그림 8> 연도별 외환보유고 추이

(단위 :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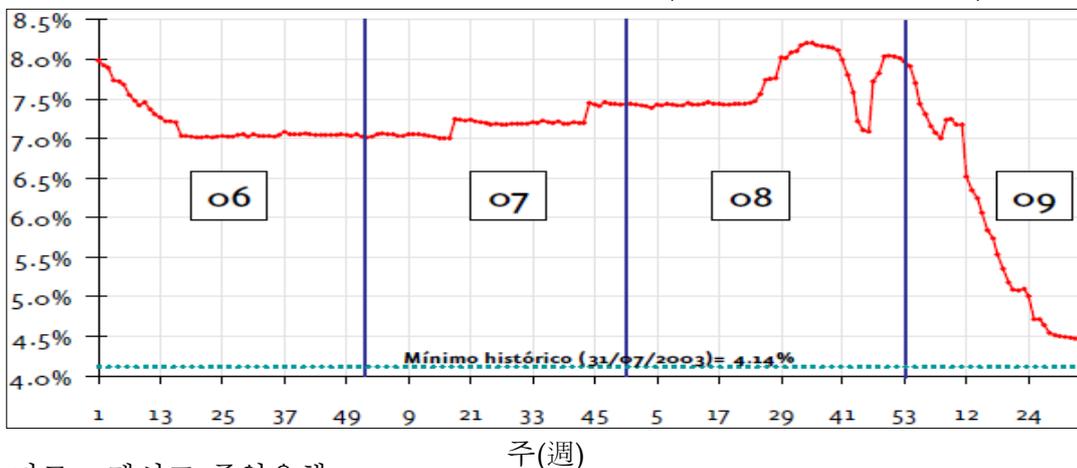


주: * 2009년은 8월 21일 현재 기준
 자료 : 멕시코 중앙은행

□ 멕시코 기준금리 바닥권 진입

- 8월 25일 현재 멕시코의 28일, 91일 및 182일물 기준금리는 각각 4.47%, 4.56% 및 4.72%로 1bp, 2bp 및 8bp 하락
- 반면, 30년 만기 채권의 경우 전주대비 30bp 상승한 4.45%에 거래

<그림 9> 연도별 주별 기준금리 동향 (CETES 28일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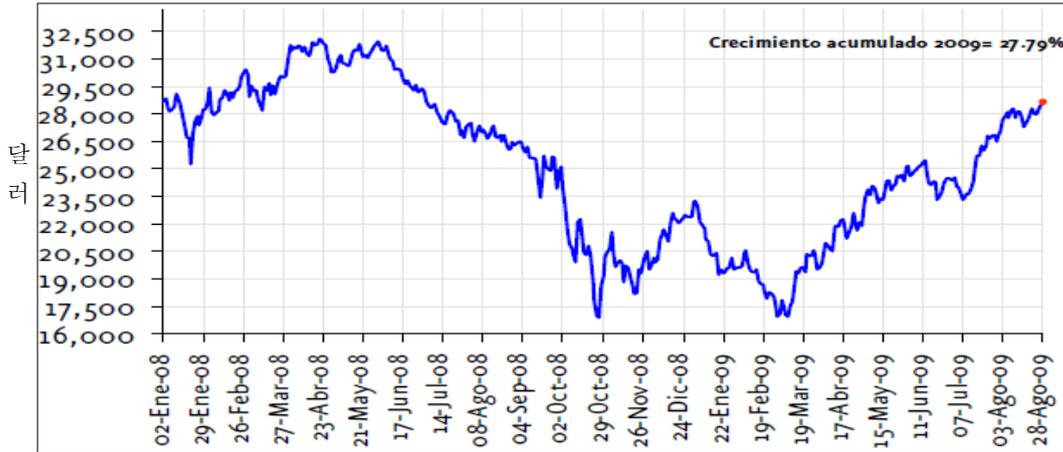
자료 : 멕시코 중앙은행

□ 3월 이후 증시 상승세 지속

- 8월 28일자 멕시코 IPyC 지수는 전주대비 1.03% 상승한 28,599.92를 기록했으며, 이는 연초대비 폐소화 기준으로 27.79% 올랐으며, 달러화 기준으로는 33.33%가 상승

<그림 10> 멕시코 주식시장 동향

(단위 : 포인트)



자료 : 멕시코 증권업협회

□ 페소 달러 환율 소폭 상승

- 8월 28일자 페소화의 대미 달러 환율은 43.5센타보 오른 달러당 13.2579 페소로 마감. 이에 따라 동 일자까지의 연평균 환율은 57.46센타보 증가한 13.67을 기록

<그림 11> 페소화 대미 달러 환율 동향(2007~2009)

(단위 : 페소/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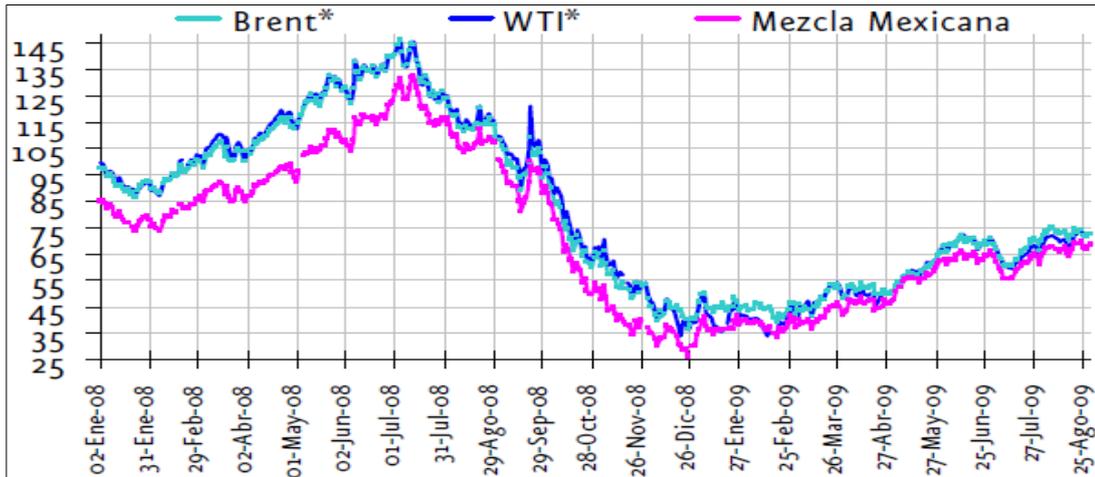


자료 : 멕시코 중앙은행

□ 멕시코산 원유 수출가격 소폭 하락

- 8월 28일자 멕시코산 원유 수출가격은 전주대비 0.82% 하락한 배럴당 68.58달러에 거래되었으며, 한편, 텍사스중질유 및 브렌트유도 각각 1.56% 및 1.89% 하락하여 72.74달러 및 72.79달러를 기록

<그림 12> 원유수출 가격동향(배럴당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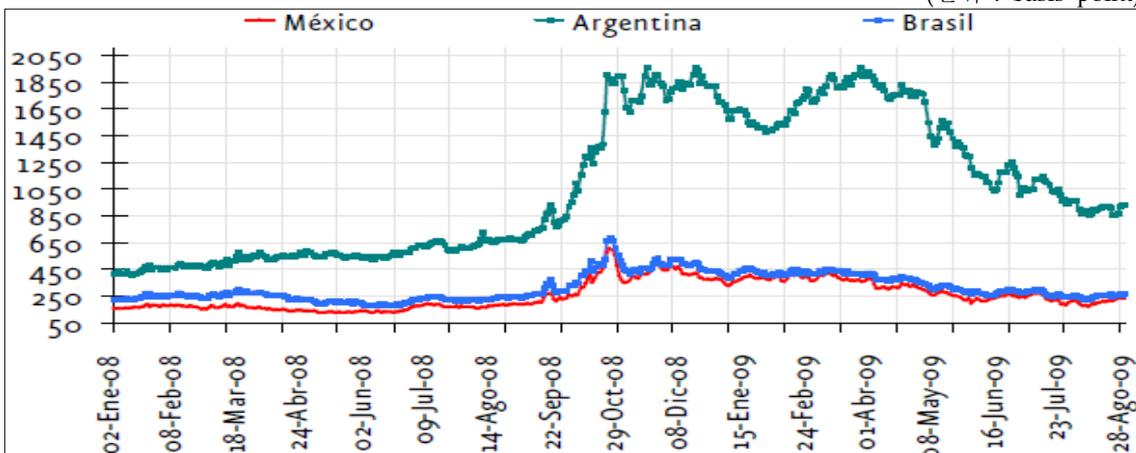
자료 : PEMEX

□ 멕시코 국가위험도 하향 추세 지속

- 8월 28일자 현재 멕시코에 대한 J.P. Morgan 이머징마켓 채권지수 (EMBI+)는 전주대비 23bp 상승한 233bp를 기록했으며,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도 930bp 및 266bp로 전주대비 각각 66bp 및 13bp 상승

<그림 13> 멕시코 국가위험도지수(EMBI+)

(단위 : basis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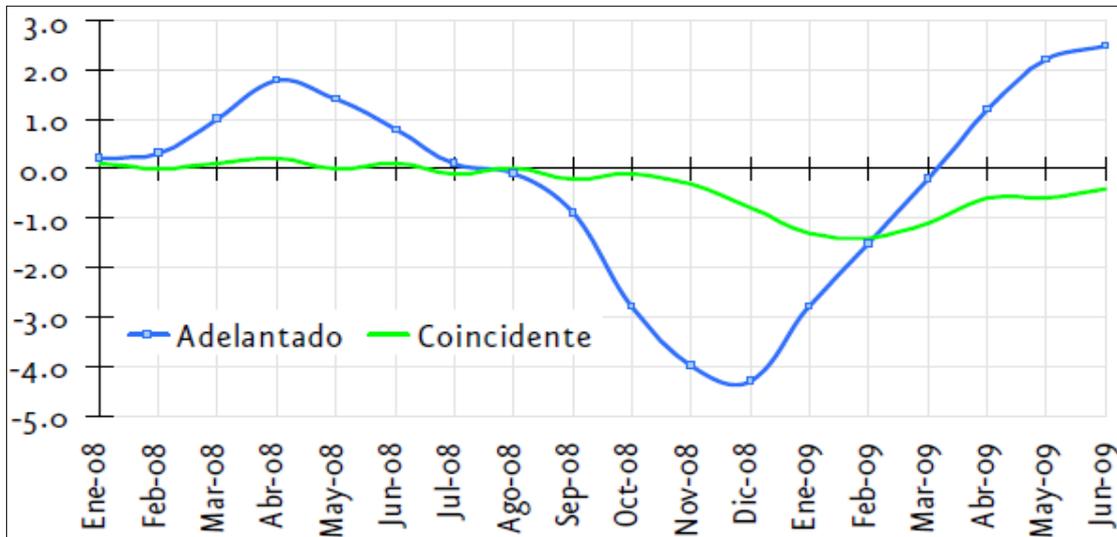
자료 : JP Morgan

2. 기관별 경제관련 전망

□ 멕시코 Conference Board, 멕시코 경기 위축 완화세 지속 전망

- 멕시코 중앙은행 Conference Board에 따르면 8월말 기준 동국 선행지수가 2.3% 증가했으며, 동행지수도 0.2%로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는 등 향후 경 선행지수 `가 동행지수` `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

<그림 14> 종합경기전망지수 추이



자료 : 멕시코 Conference Board

□ IDB, 멕시코 경제상황 예상보다 양호

- Luis Alberto Moreno IDB(미주개발은행) 총재는 멕시코 경제가 당초 기대와 달리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며, 올해 말 GDP 성장률도 시장 전망치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예상
- Moreno 총재는 1분기 남미의 경제상황은 매우 심각했으나 2분기부터 회복 기미가 보이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도 남미지역의 금융 중단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음. 또한 이 지역 금융시스템도 오히려 북미나 유럽보다 문제점도 없었다고 주장

- 다만 그는 현재 가장 큰 이슈는 일자리라고 언급하면서 남미 지역의 평균 실업률이 9.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국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

□ UBS, 멕시코 기준금리 향후 10개월까지 4.5% 유지 전망

- UBS는 멕시코 중앙은행이 금융정책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여러 선진국에서 경기 회복신호가 뚜렷하고 멕시코 경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며 향후 10개월까지는 현재의 금리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

□ 메릴린치, 멕시코 경제 최악의 상황 극복해

- 메릴린치가 지난주 발표한 멕시코 리포트에 따르면 3분기부터 동국 경제가 회복 단계에 진입했으며, 상반기 중 경험한 최대의 경기 위축상황에서 벗어난 것으로 분석
- 이는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 부양정책에 힘입어 멕시코 자동차 산업 등의 수출경기가 회복되는 한편, 일반 산업부문에서도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
- 이에 따라 동사는 멕시코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개월전 06.8%에서 05.6%로 상향 조정했으며, 2010년에는 3%의 경제성장이 예상된다고 전망

□ IXE증권, 연말 멕시코 페소 달러 환율 13.38 예상

- 멕시코 IXE증권사는 8월중 자국 통화가치의 긍정적 모습이 시현되면서 연말 페소화 대미 달러 환율을 13.38로 하향 전망. 참고로 동사는 연초 동국 환율전망을 16페소에 이를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최근 정부가 내놓은 “2010년 경제운용방안”으로 인해 9월에서 11월중 환율의 변동성이 예상된다고 언급

- 한편, 동사는 “2010년 경제운용방안”이 신용평가사들이 기대하고 있는 동국 정부의 재정 강화를 위한 확고한 구조개혁 추진 의지를 평가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언급

□ **BBVA Bancomer, 멕시코 연말 인플레이션을 4% 대로 전망**

- Bancomer는 멕시코의 연말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3.85%에서 4%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 그러나 농산물 가격과 국제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휘발유가격 인상 등의 리스크로 인해 올라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

(멕시코시티 사무소 제공)